

## \*\*실내디자인의 주기적 변화 성향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A Study on the Tendency of Interior Design's Periodic Changes based on Psychology

함정도\* / Herm, Zeong-Do

###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the tendency of interior design which have sustained the periodic changes throughout the history. After analysis of changes in interior design from 1920's early modernism to nowaday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In view of the human psychology, the main trend of consistent periodic changes is the revolutionary change of tension and relaxation, and the pursuit of such a change in design is rooted in the human basic need to get the vital energy through stimuli by giving and taking the variety in the public society.

**키워드** : 주기적 변화성향, 긴장과 이완, 자극장 변화, 생명 에너지

### 1. 서론

현대는 모든 문화적 가치가 상대화되고 다원화되기 때문에 어떠한 단일의 가치도 지배적이거나 우월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가치는 단편화된다. 형태에 대응하는 상징체계가 공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축의 형태는 상징적 의미의 표상능력을 상실하며, 개별 건축가의 다양한 실험과 모색은 공동의 기반이 결여된 혼재향(heterotopia)으로 특성지어진다.<sup>1)</sup> 특히 정보화 시대로 불리우는 현대사회의 예술은 텍스트의 총체성이 결여되고 파편화 됨에 따라 기존 가치의 붕괴와 이에 따른 과급현상이 급기야는 퓨전(fusion)문화 같은 단선 시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의 새 코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실내디자인의 그 지속적 성향의 의미를 심리학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내디자인의 상대적 위치와 예술의 속성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모더니즘 이후 현대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여, 실내디자인의 지속적 변화 성향을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에 대한 분석은 형태심리와 생태학적, 교류학적 지각이론이나 정신 생물학적 접근방법 등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결론으로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가 추구되어 온 공간형태의 변화 성에 대한 심리학 측면의 해석을 통하여 실내공간이 갖는 공간 및

조형성과 인간의 시지각 심리 및 속성과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실내디자인을 포함한 예술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심리와의 근원적 관련성을 추론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실험정신의 필연성을 환기시킴이 목적이다. 이는 과도기적인 위기나 혼탁으로 파악되는 현대예술의 혼재 성향에 대한 반성과 정착 방향에 일조함에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 2. 실내디자인의 상대적 위치와 예술의 속성

#### 2.1. 실내디자인 — 건축 및 미술과의 상관성

실내공간 디자인은 응용, 목적예술로써 공간 및 내부구성요소에 의한 상징체계를 통하여 인간 중심의 공간형성을 목표로 하는 예술 분야이다. 또한 상징체계에서 형태 및 공간이 갖는 추상성과 장식요소가 갖는 담화적인 요소에 의하여 인간중심의 공간으로 이끌게 되므로, 실내디자인은 건축과 시각예술의 중간적 위치에서 디자인 기법이 함께 적용되고, 때에 따라 공간성격에 의하여 건축편향적 내지는 시각예술 편향적일 수 있다.<sup>2)</sup>

근대 이전의 실내공간이 공간과 장식요소로 이뤄진 양식위주의 상징적 질서구축 체계로 해석되며, 근대 이후의 경우 동반자적인 위치에서 상호 교류하는 건축과 미술의 새로운 흐름과 동승하며 변화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근대 이후 건축의 추상미술 수용 배경

\* 정희원, 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 이 논문은 서울산업대학교 교내학술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정만영, 건축형태의 자의적 생성에 관한 연구, 시립대 박논, 1992, pp.1-3  
2)함정도, 실내휴식공간 분위기 연출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논, 1993, p.46

은 추상미술과 건축의 추상성이 형식요소들 사이에서 원천적 구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추상미술에 나타난 시대정신 표현성과 전위적 특성은 건축에도 같은 이념과 형태추구의 동반자적 흐름으로 이 끌었음을 알 수 있다. 근대건축이 추상미술의 기하학적인 특성만을 인용의 대상으로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추상미술에 내재된 시대정신과 사고를 반영하고, 건축형태 표현의 요소로서, 또는 건축의 창조적 사고에 영감을 주는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몬드리안의 구성, 말레비치의 건축구성, 반통겔루의 추상조각, 보치오니의 미래파 조각 등의 기반은 '건축적'인 것이며, 구성주의자 또는 요소주의자들에 의한 '건설 (construction)'의 조각상들은 그 영감의 원천을 건축물에서 얻고 있음은 그 추상성에서 비롯하였고, 이는 근대건축의 생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추상미술과 건축과의 접목은 건축 본래의 추상성에 기인하며, 이러한 추상미술과 건축의 통합은 채크스(C. Jencks)의 지적처럼 형태적, 의미론적 속성이 인간의 물리적 욕구와 미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심리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현대까지 건축과 회화의 개별적 자체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표현성에서는 같은 조형예술로서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공통성과 동질성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근대 이후 건축은 추상미술과 동반자적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특히 기능 목적 우선의 근대건축의 개념이 당위성을 상실한 이후 현대 건축조형은 기능을 초월한 순수예술로써 그 조형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 볼 때, 현대건축과 현대 회화의 상관성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견지에서 볼 때, 실내공간 디자인은 건축과 미술의 중간적 위치에서 그 흐름에 동승하여 형태표현 원리나 이념이 부단한 교류의 선상에서 진행되어 왔다.

## 2.2. 예술의 속성 — 이원성과 주기성

### (1) 이원성의 해석

1970년대 일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원적 코드로 현대의 현상을 설명하며, 이는 순수주의와 기능주의에 입각한 모더니즘의 일원적 해석이 필연적으로 도달한 결과 - 근대건축이 처음부터 갖고 있는 모순성으로 해석된다.

빌프린(H. Wölfflin)은 시대에 따른 양식변화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랜(C. Wren)은 미의 2가지 근거로써 자연적인 것과 관습적인 것 즉 합리적, 논리적인 것과 서정적, 관습적으로 구분 짓고 있다. 또한 니겔(C. Niegel)은 인간 뇌의 구조가 논리적, 언어적인 좌뇌와 직관적, 현상적인 우뇌로써 이원성을 설명하고 있다. 건축의 경우 터너(P. Turner)는 코르비제(L. Corbusier)의 도미노(Domino)구조를 해석함에 있어 합리적 구조체계(합리성)에 의한 자유스런 평면과 입면(서정성)의 가능성을 수용케한 코르비제의 비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성을 조형언어로써 '적극적'과 '소극적' 언어로 구분하여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이 때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기타의 나머지 언어는 선택된 어휘에 대한 설명적 성격이 된다.<sup>3)</sup>

- 적극적 언어 (양, positive)

: 긴장, 단일화, 정형 순수성, 강제적, 인위적, 고전적, 기념적, 합리적, 선형적, 위요적, 기계적, 한정적

- 소극적 언어 (음, negative)

: 이완, 다양화, 비정형 목적, 자연적, 시대적, 기능적, 서정적, 경험적, 개방적, 인간적, 무한적

이 중에서 몇 가지 상반된 주요언어를 성격 별로 구분지어 보면, 디자인 원리 측면에서 '통일성과 다양성', 심리학적 측면에서 '긴장과 이완', 구성체계 측면에서 '정형과 비정형 (formal/ amorphous)' 및 '위요성과 개방성', 시간개념의 경우 '고전성과 시대성' 등으로 대별된다.

이상과 같이 예술은 상대적인 두 요소 -- 적극적, 소극적 요소--의 상호대립성과 상호보완성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고, 서로의 조화를 통한 활기, 참신한 아름다움 추구를 견지해 나가는 속성이 있다.

### (2) 주기성의 해석

이원적 요소에 의한 예술형식의 역사는 결코 정지해 있는 법이 없으며, 그 추진력에 있어 완급과 부단한 반복의 외증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매력 감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써 매력을 증대하는 작업이 뒤따른다는 소극적 이론이 있으나, 모든 형식은 생산적으로 발전하며 어떤 효과를 내는데는 늘 새로운 것이 동원된다는 사실의 제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도 설명된다.<sup>4)</sup>

발전의 순환성은 건축사에서 형태 발전상의 주기성이 존재함을 알게 되고, 이 때 순환성의 개념은 발전이 어느 시점에서인지 정지하고 새로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내포하나, 그 순환성은 결코 한 번 겪은 바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바 그 상황은 나선형 운동에 비유될 수 있다.<sup>5)</sup> 이렇게 완벽한 경지에 이른 표현 수단들은 그 방식을 교체하며, 이는 세계의 내용이 직관을 통해 가시화 될 때 결코 하나의 동일한 형식을 통하여 드러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인간의 직관은 늘 동일하게 머무는 거울같은 것이 아니라, 고유한 내적 역사를 지니며 다양한 발전단계를 거치는, 생동하는 파악 능력이다.<sup>6)</sup>

이상과 같이 예술에는 인간의 직관 속에 융해된 이원적 요소의 상호대립성과 보완성이 끊임없는 주기적 부침과정을 거치면서 나선형의 형식으로 순환, 진행하는 속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실내디자인의 변화 성향

### 3.1. 실내디자인 변화 과정<sup>7)</sup> (<그림 1> 참조)

#### (1) 모더니즘 초기-1960년 이전/양식의 탈피와 구성개념의 발전

3)안영배, 건축표현의 상대적 양면성, 대한건축 학회지 28권, 116호, 1984. 2, p.12

4)Wölfflin Heinrich, 미술사의 기초개념, 박지영 역, 시공사, 1997, p.322

5)ibid., p.328

6)ibid., p.317

7)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1999에 소개된 내용과 일부 각주의 참고자료에 의하여 정리함.

(1920-1960년)

19세기는 전통적 시대양식에서 근대성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장식위주의 환경, 공간의 폐쇄성에서 탈피하여, 기능을 중시한 형태 및 공간구성을 통하여 기계미학에 접근한다. 구성체계에서 실제적 단위로서의 요소개념이 계열체적 요소개념으로 변질하고, 구축성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점차 해방하여 구성개념이 강화된다. 근대 회화 운동인 데 스틸(De Stijl), 러시아 구성주의 등에 의한 상호작용은 건축의 구성요소들을 이질적 요소들의 모순된 관계 (해체, 분절, 전이 등)로 변질시키고, 형태 구성방식의 중심은 요소의 전체화와 단편에 의한 시각적 폴리주의 양상을 띄게 된다.<sup>8)</sup>

이러한 과도기는 공간의 유동성과 함께 순수한 형태를 추구하는 대체적 경향으로 귀결되며, 기데온(S. Giedeon)은 모더니즘 건축을 '입체와 내부공간의 건축'으로 규정한다.<sup>9)</sup> 이와같이 근대건축은 공간의 공간감, 개방감, 상호관입 추구와 함께 형태의 간결성과 단순성으로 요약되며, 실내공간에 대한 디자인도 그 변화 성향을 모더니즘에 입각한 흐름에 동승한다.

(2) 1960년 이후 - 현대

모더니즘의 물역사성과 획일성에 대한 반성, 예술의 대중화 개념, 인간 실존성과 장소성의 재인식 등의 과정은 꾸준한 표현 상의 변화를 야기 시키고, 또한 다원·다편화되는 현대문화 현상은 보수적, 전위적 두 흐름에서 탈근대성에 입각한 개인성향의 다양한 표현경향을 보이며 현대에 이르고 있다. 시기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60-1970 /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내디자인

1. 시각적인 실내형성 : 대중 예술개념의 도입에 의하여 시각적인 실내디자인의 흐름이 형성되며, 팝 아트, 캠프 아트, 키네틱 아트 등의 그래픽 요소가 주요한 실내구성 요소가 된다. 부차적인 역할로 간주되던 미술에 대한 기존 경향에서 벗어나 현대미술의 개념과 기법을 공간의 주요요소로 등장시켜 시각적으로 토탈디자인된 환경으로 이룬다.

2. 조형적인 실내공간의 형성 : 예로 사이리넨, 폴 루돌프의 야수적 경향

3. 다양한 표현의 실내공간 : 매너리즘 및 미니말리즘의 표현경향이 병존한다.<sup>10)</sup> 매너리즘의 경우, 그 표현 특징으로써 역사적 양식의 변화를 절충, 작가의 개성적 형식언어로 공간의 재구성, 반근대적

요소의 채용 등으로 기존 환경질서에 난해, 다원적 경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실내의 경우 모방과 창조, 비합리적인 모순의 구성, 자아도취적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과장된 장식으로 인간의 내면의식이 강하게 표현된다.

이에 반하여 미니말리즘은 극소화된 형태와 절제된 간결함 속에서 그 순수성을 강조시키며, 특정 위치에 배치된 오브제가 디자인의 관건이 되도록 하는 표현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매너리즘과 미니말리즘의 표현성은 서로 지극히 상반된 위치에서 병존한다.

② 1970-1980 / 실내디자인의 다원화 현상 (pluralism)

근대성이 갖는 순수주의와 기능주의의 물역사성과 획일성에 대한 반성은 역사주의, 장식주의, 맥락주의 등의 사조 형성을 촉진시키고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큰 흐름으로 합류되며, 또한 상업공간에서도 과거 체험에 근거한 연상의 재인식에서 출발한 상징적 재현방식의 도입이 시도된다.

한편 모더니즘 정신을 재해석 내지는 발전코자 하는 움직임은 네오 코르뷔지어리언적 경향(neo-corbusierian)으로 나타나고, 또한 근대건축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레이트 모던 디자인은 기계미학의 계속적 추구로 슬립테크(slick-tech)로 지칭되는 흐름을 견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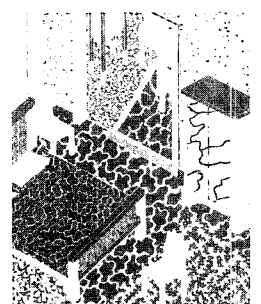
미스의 바르셀로나 전시관 내부, 1929년



무어의 침실내부 New Haven, Connecticut, 1966년



홀라인이 설계한 비엔나 오스트리아 여행사, 1976-78



멤피스의 패턴으로 이루어진 실내, 1982년

<그림 1> 실내별 실내디자인의 변화

③ 1980-현재 / 실내디자인의 다양한 접근- 새로운 디자인의 물결

전체적으로 표현경향은 전세계적 디자인 공유현상과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독립된 자체 특성화의 흐름 속에서 보수적 경향과 전위적 경향이 병존한다. 전위적 실험방식적 접근의 경우 다양하고 통일되

8)정만영, op.cit., p.124

9)原川秀昭, 20세기의 주택, 강병근 역, 화영사, 1995, p.3

10)19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문화의 다원화 현상은 기존 규범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이에서 탈출코자 하는 현대사회 인간의 소외된 심리적 상황은 매너리즘적 경향을 보임. 한 예로써 벤츄리는 '건축에 있어서 복잡과 대립에서 건축의 2중성 즉 대중성과 엘리트적 요소의 결합으로 해석하고, 이는 순수성이 기초를 둔 근대적 이념의 쇠퇴기에 나타난 현상으로써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평가됨. 이에 반하여 미니말리즘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젊은 작가들이 주체가 되어 최소한의 조형 수단과 표현으로 회화, 조각 등에서 연유된 것으로 칼빈주의의 엄격함, 간결성에서 영향을 받아 작가 개인의 감정과 주관적 표현을 극도로 배제한 순수, 무표정한 형태의 반복이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건축의 본질적 요소를 향한 환원주의적 자세로 해석된다.

지 않은 이론 형성을 보이는데, 이는 커다란 디자인 사조의 출현이라기 보다는 탈근대성에 입각한 독특한 개인 성향의 디자이너들의 활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대 디자인의 전체적 경향은 포스트모던이나 반예술(anti-design)의 지류로 볼 수도 있으나 유토피아니즘을 배제하고 있다는 근본적 차이를 보인다. 즉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고, 소규모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시간성과 개성을 창조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경향이 디자인으로 구체화되는 흐름으로 이해되며, 일상 자체가 뉴스, 이벤트의 연속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대의 큰 흐름은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1. 급진적 디자인 : 국제화된 소규모 집단을 주축으로 상호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차별화를 강조하며, 다양성, 자율성, 독자성을 강조하는 급진적 표현경향을 보인다. 예로써 멤피스 그룹(Memphis group)의 경우 상업적이고 대중미학 추구의 배경 하에 지적보다는 감각적 공간 인식의 경향을 띄우며, 강렬한 색채, 장식적 패턴의 도입으로 대중과의 교류를 시도한다.

2. 네오 모던 디자인(neo-modern) : 과거의 형태와 기본원리를 해체한다. 예각의 사선구성에 의한 시각적 긴장감 유발, 불규칙적 곡선, 비인간적 스케일, 비정형의 구성 등에 의한 고조된 역동감을 표현코자 하며, 이질재료의 혼합사용 등으로 일상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간형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3. 하이테크 및 하이테크 디자인 등 : 발달된 공학기술을 바탕으로 테크놀로지의 이미지를 표현코자 하는 하이테크 디자인과 파괴된 현대의 전자, 기계제품에서 미래 미학을 발견하고 적용 시도하는 트랜스 하이테크(trans high-tech)으로 나타나며, 이에 반하여 감성을 중시하여 실내환경의 섬세한 부분에 테크놀로지의 이미지를 표현코자하는 하이테크 디자인의 흐름이 형성된다.

이러한 여러 표현성은 공간의 서술성 대입을 통하여 개념공간(11) (conceptual space)화 시켜 새로운 공간 이미지 연출체계를 형성하는 표현경향도 보인다. 그 외에 자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생태, 그린, 환경친화 등의 개념으로 실내환경 디자인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부공간화 된 실내 거대공간(urban interior)에 공간의 환경화, 시각화 등이 현대 도시건축의 실내공간에 적용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 3.2. 변화 성향에 대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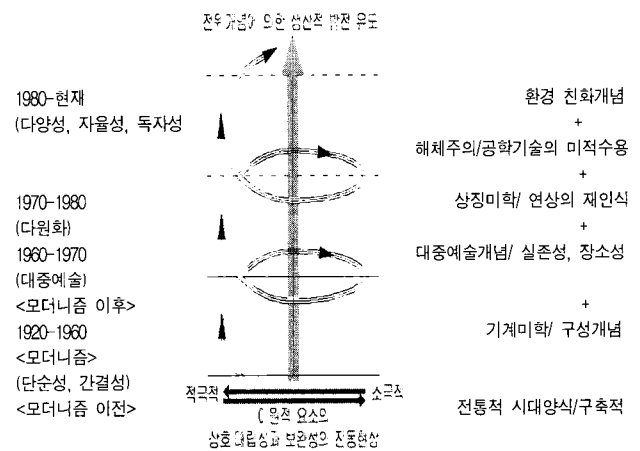
건축과 회화의 흐름과 동승하는 실내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은 20세기 초 모더니즘의 출현과 함께 합리성, 기능적 질서체계의 형식적 논리에 입각하여 진행되나, 그 후 모더니즘의 일원성은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와 모순성에 부딪혀 새로운 사조를 수용하면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현대에 이르고 있다.

3.1.에서 설명한 실내디자인의 시대적 흐름은 <그림 2>과 같이 정리될 수 있으며, 이는 예술이 갖는 이원적 요소의 수평적 순환체계 운동과 시대 별로 전개되는 전위개념 즉, 기계미학과 계열 별 구성개념, 대중예술 개념과 인간 실존성에 의한 장소성의 재인식, 연상이 갖는 상징미학 등이 최근의 환경 재인식과 함께 그 시대를 선도하는 전진된 흐름과 복합적으로 혼합·융해되어 진행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순환과 전진 형상의 실내디자인 흐름은 이원론과 주기성의 시각에서 볼 때, 형태, 공간구성 및 연상의 측면에서 긴장, 이완의 이원적 요소가 진폭을 갖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지각인지에 의한 인간 두뇌활동에 계속적 자극과 이완의 시간적 부침, 즉 주기성으로 해석된다.

### 4. 실내디자인의 변화 성향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

예술은 인간의 직관 속에 융해된 이원적 요소의 상호대립성과 보완성이 끊임없는 주기성을 갖는 부침과정으로 해석된다. 순환과 전진 형상의 실내디자인 흐름을 이원성과 주기성의 시각에서 볼 때,



<그림 2> 실내디자인 시대흐름의 해석

그 흐름은 최종적으로 인간의 심리에 연관되어 계속적 자극과 이완의 주기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를 형태심리와 인간심리분능과 연관된 지각이론이나 정신생물학적 접근방법 등의 관점에서 분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박진배, 현대 인테리어의 표현경향 · 실내디자인 이야기, 실내디자인 학회, 기문당, 1998, pp.157-160

\* 스토리가 있는 공간 (narative design) : 정신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의 문제를 통하여 서술적 차원으로의 진입을 추구하며, 과거와 미래에 관한 언급들이 현재공간에 표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현대 이미지의 교묘한 결합과 3차원적 교차(juxtaposition)을 통하여 공간경험자의 인상을 자극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는데, '정보와 인용, 장식과 은유가 풍요로운 디자인'을 창조함으로써, 실내공간에서 하나의 소설(fiction) 또는 시나리오(scenario)를 읽는 것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도출하는 고도화된 질적 수준의 개념을 연출함.

\* 시적인 공간 (poetic design) : 강한 컨셉을 중심으로한 스토리를 완성을 추구하며, 과학적 측면보다 철학적 의미 공간도입을 시도, 표현으로서의 디자인을 강조하여, 시각적 전달 느낌을 중시하는 경향.

#### 4.1. 긴장·이완에 대한 형태심리 측면에서의 해석

모더니즘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온 공간형태의 왜곡은 시지각 과정에서 긴장을 추구해 온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긴장은 형태에 내재된 현상적인 힘으로써 이에 의한 심리적 자극이 인간의 대뇌 중추 안에서 야기하는 지각의 힘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긴장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이완 추구에 대하여 프로이드는 유기체를 지배하는 원리일 뿐 아니라, 유기체의 근본적 경향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긴장과 이완의 공간체험을 일으키는 현상적 요인은 크게 1. 방향성 (중심의 방향성, 극한 비례의 방향성, 깊이의 방향성) 2. 전이성 (빛과 장소변화에 의한 전이) 3. 왜곡성으로 대별될 수 있다. 근대건축 이후의 전체 흐름은 회화와의 상호교류에 의하여 특히 왜곡성의 심화과정<sup>12)</sup>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왜곡성은 ①불안정한 형태와 뒤틀린 형태 등의 변형, ②모호성, ③복잡성으로 구분된다.<sup>13)</sup>

(1) 불안정한 형태와 뒤틀린 형태의 변형 해석 : 모더니즘에 입각한 공간형태의 획일성과 단순성에 대한 반작용은 현대에 이르러 축의 방향전환, 면의 소거와 중첩, 어긋남과 대각선, 전경/배경의 역전, 비완결된 형태와 계획된 경이감의 제공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왜곡된 변형과 복잡성을 띄게 되는데, 왜곡의 경우 아르하이임(R. Arnheim)은 '대상의 전체적인 형상이 그것의 공간 차원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sup>14)</sup>하고, 발생 원인을 '주어진 형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본 것에 대한 기억의 흔적과 현재 보이고 있는 것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 왜곡된 변형- 경사, 왜곡된 선, 형태, 비원근법적 표현, 중첩 등은 시각효과에서 긴장감을 형성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형태구성에서 요소의 왜곡은 긴장감을 형성시키며, 전체구성의 완결성은 비완결적인 것에 의하여, 한계진 것은 한계 지워지지 않은 것에 의하여 안정감의 느낌 대신 긴장감과 운동감의 느낌이 지각됨을 알 수 있다.

(2) 모호성의 해석 : 빌프린은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의 두두러진 차이점을 '선적인 것에서 회화적인 것으로의 발전'으로 규정하고, 회화적 구성이 가진 특징 즉 모호한 형태에 대한 다양한 주관적 해석이 형태가 갖는 고유의 의미를 가족적 대상을 넘어 불가촉적인 영역에로까지 확장시킴으로써 형태를 결한 가상의 아름다움까지 인정하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즉 비구축적 구성의 기저에 깔린 숨겨진 질서에 의하여 미를 존중하게 됨을 의미하며, 그 속에 내적 운동감이 생성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는 레이놀즈의 언급<sup>15)</sup>에서 알 수 있듯이 회화적 구성이 갖는

12)이일형, 현대건축의 혼성적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1권 1호, 1995.1, pp.35-36 참조. 대체로 왜곡성은 혼성적 표형경향 즉, 근대의 단순·추상적인 순수성에 대립하는 개념에서 나타난다. 문화의 유입이 빈번한 경우 혼성적 양태로 되며, 현대건축의 다원화, 복잡성에 대한 개념과 표현에 연관되어 특히 개인적인 미적 자의식이 증대할 때 더욱 확대된다.

13)김정애, 공간체험을 통한 긴장·이완의 현상, 실내디자인학회지 16호, 1998. 9, pp.109-112

14)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1996, p.221

15)Gombrich,E.H., 예술과 환영, 차미에 역, 설화당, 1994, p.229 "이 흐릿한

비완결된 형태의 모호성이 상상력에 의하여 완결로의 방향을 지향하며 이 때 긴장감과 운동감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3) 복잡성의 해석 : 몰레스는 구조적 복잡성과 형식적 복잡성으로 구분한다. 이 때 두 구조 모두 그 복잡성의 정도에 의하여 미적 선호의 지표가 됨을 지적하는데, 이는 앨런 아이작의 긴장과 이완현상에 대한 언급, R. 아르하이임의 언급 - "단순한 정연함은 질 저하를 증가시키며, 결국 질서가 없는 혼란과 명백히 구별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수준의 구조를 야기 시킨다."라는 언급과 동일 선상에 있다. 이는 단순성이 갖는 이완현상으로 인하여 낮은 수준의 구조형식임을 알 수 있고, 복잡성이 갖는 긴장감이 높은 수준의 구조형식으로써의 가능성을 알려 준다.

이렇게 형태는 담고 있는 내용과 함께 그 구성형식이 갖고 있는 복잡성에 의하여 미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게스탈트 심리학자가 인지했던 바와 같이 질서는 환경에 대한 미적감상을 위한 기본적 필요조건으로 중요하며, 따라서 R.아르하이임은 형식적 가치 연구에서 "정돈된 복잡성의 수준이 바로 질서의 수준이다. 미는 질서와 복잡성 사이의 관계에서 파생된다."라고 언급하고 "만약 질서감각만 유지된다면, 의미의 다양성이 커질수록 환경의 즐거움도 커진다"<sup>16)</sup>고 설명하는 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변형, 모호성, 복잡한 구성에 대한 최근의 형태심리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유기체의 속성 중에는 주어진 힘의 패턴을 가장 단순하게 유지하려는 단순성·평형의 경향과 반대로 패턴을 이탈하려는 비평형성·긴장의 증가·침체화의 경향 두가지 경향을 함께 갖고 있음을 밝혔다.<sup>17)</sup> 지각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외부환경을 접하는 시지각의 최초 단계인 응시가 긴장에서 긴장감소의 운동이며, 지각은 어떤 유기체에 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외부 힘이 가해지는 침입에 대한 내적 투쟁으로써, 이 양자간 항력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지각 표상이 달라져, '방향성 긴장(directed tension)'이나, '부동 패턴 속의 운동'으로 지각하게 된다. 즉 어떤 자극이 야기하는 이질성은 긴장감을 초래하고 시각의 장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며, 이렇게 지각된 외부의 긴장요인은 인지, 정보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체계화되고 단순화되어 긴장감소의 방향으로 진행된다.<sup>18)</sup> 즉 왜곡화된 형태는 체계화되고 단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최소 노력의 패는 가장 단순한 패턴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경계로부터 최대 에너지량을 끌어내는 자극의 최대치라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신적 능력들의 가장 왕성한 활동들을 전제로 한다'는 것과 최근의 실험적 연구들의 결과에서 '단순성과는 반

양식에는 일반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보는 사람에게 실물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想像力이 그 나머지를 배운다.-그 희미함이 상상력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그 성격과 형태를 취하도록 거대한 폭을 허락해 주기 때문이다."

16)Lang, Jon. 건축이론의 창조, 조철희·김경준 역, 도서출판 국제, 1991, p.278

17)Rudolf Arnheim,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1996, p.402

18)ibid, pp.406-429

대되는 복잡성 -풍요롭고 역동적이면서 비대칭적인 것들- 에 대한 인지적 선호가 창조적인 인간의 현저한 특성이라는 결론<sup>19)</sup>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모더니즘 이후 끊임없이 진행된 공간형태의 변형은 그 구성요소가 형성하는 비완결적 불완전성이 안정된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내적 운동감에 의하여 긴장감이 심화 내지는 이완을 거듭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고, 이 때 질서감각은 미적 즐거움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온 일련의 과정에서 항상 유지되어 옴을 알 수 있다.

## 4.2. 주기성에 대한 인간 본능 측면에서의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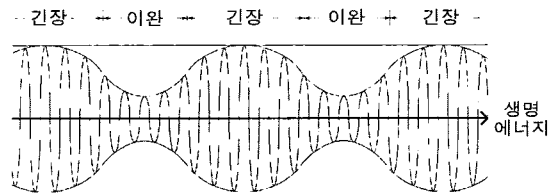
공간형태의 변화는 긴장과 이완의 부침과정으로써 주기성을 띤다. 시각 양식 자체에 내재하는 특성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 반응을 유발한다고 하며, 모든 인간은 일반적인 생물학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이나 동물은 방향지시를 위해 본능적으로 명확성과 간결성을 요구하며, 안정성과 좋은 기능성을 위하여 균형과 통일성을 요구하며, 자극을 위하여 변화와 긴장을 요구한다.<sup>20)</sup> 이와 같이 인간의 심리적 지각상태는 비례가 잘 잡히고, 단순·안정된 상태를 요구함과 동시에 말초적 지각반응을 일으키려는 끊임없는 요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카타르시스의 요구 속에서 드라마틱한 변화 추구를 통하여 긴장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속성이 있다.

이를 형태심리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근거하여 볼 때, 인간의 평형 및 비평형성을 부단히 추구하는 인간의 양면성은 모든 작품에도 반영되며, 유기체인 인간은 단순성이나 가급적 최소한의 긴장으로 향하려는 경향만을 가지고는 자신을 충분히 표출하지 못하듯이, 예술 작품도 자체의 고유한 조화나 균형이나 질서만을 가지고는 스스로를 표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된다. 이는 인간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선호경향(neophilia)과 싫어하는 경향(neophobia)의 균형있는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균형이 유지되지 않으면 인간기능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모리스(D. Morris)의 이론<sup>21)</sup>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예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극도의 미학적 모험은 예술교육에 의한 습마 형성의 기반이 미숙한 감상자에게 도리어 혼란과 정신적 폭력으로까지 여겨지며 이는 라포포트의 언급, 즉 인간의 최적 지각입력정보에 선호범위가 있음<sup>22)</sup>을 환기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극의 내적 수용과 발전을 통하여 인간은 환경의 요구와 자기욕구 사이에 균형을 취하며, 가장 조화적인 패턴을 형성하게끔 자기자신 내부의 여러가지 동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한다. 즉 유기체인 인간은 자극장인 주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출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단순화하여 수용함으로써, 생명에너지를 충당, 유지

해 나가고 있다. (<그림 3> 참조) 이렇게 볼 때, 공간형태의 주기적 변화성은 예술가의 꾸준한 변화추구를 통한 자기표출과 함께, 시각 환경의 자극장 변화를 내적으로 요구하고 수용하는 인간 사회구성원의 생명에너지 순환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정신생물학적 측면에서 볼 때, 예술이 인간의 호기심에서 연유된 탐색행위가 생존이나 놀이를 실현키 위한 수단으로 정착, 발전되었음에 비추어서 생각하면<sup>23)</sup>, 주변환경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고, 또한 요구하는 행위는 공간예술의 기술적 행위자인 건축가의 호기심이 새로운 형태의 지속적 변화를 야기시키고, 이는 감상자 입장의 대중이 갖고 있는 호기심에 새로운 변화를 제공, 수용되는 하나의 대응관계로 해석된다.



<그림 3> 공간형태 변화와 자극장, 생명에너지 상관도

## 4.3. 소결

모더니즘 이후 끊임없는 공간형태의 변형은 미적 질서감각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인간의 속성 즉, 카타르시스의 요구 속에서 드라마틱한 변화 추구를 통한 긴장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속성에 기인한다. 이는 인간의 평형 및 비평형성을 부단히 추구하는 인간의 양면성과 인간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선호경향(neophilia)과 싫어하는 경향(neophobia)의 균형된 유지를 통하여 인간정신기능의 계속적 유지를 목적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극의 내적 수용과 발전을 통하여 인간은 환경의 요구와 자기욕구 사이에 균형을 취한다. 즉 인간은 자극장인 주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출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를 단순화하여 수용함으로써, 생명 에너지를 충당,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실내디자인의 부단한 변화는 생명 에너지의 충당, 유지코자하는 인간의 속성에 기인한 현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5. 결론

현대까지 건축과 회화의 개별적 자체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 조형의 표현성에서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공통성과 동질성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근대 이후 건축은 추상미술과 동반자적 입장을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 특히 기능목적 우선의 근대건축의 개념이 당위성을 상실한 이후 현대 건축조형은 기능을 초월한 순수예술로써 그 조형의 본질적 의미를 살펴 볼 때 현대건축과 현대회화의 상관성은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실내디자인은 건축과 미술의 중

19)Arnheim, Rudolf, 예술과 엔트로피, 정용도 역, 눈빛, 1995, p.62

20)Arnheim, Rudolf, 예술심리학, 김재은 역, 이화여대 출판부, 1995, p.150

21)Morris, Desmond, 털없는 원숭이, 김석희 역, 정신세계사, 1991, p.157

22)Lang, Jon, op. cit., 조철희·김경준 역, p.235

23)Morris, Desmond, 머리 기른 원숭이, 황현숙 역, 까치, 1996, p.249

간적 위치에서 그 흐름에 동승하여 형태표현 원리나 이념이 부단한 교류의 선상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을 근거로 모더니즘 이후 실내디자인의 변화과정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 공간형태의 지속적 변화추구는 인간의 직관 속에 융해된 이원적 요소의 상호대립성과 보완성의 끊임없는 주기적 부침과정이며, 이는 긴장 및 이완의 자극장 변화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인간 속성이 기인한다.

둘째, 시각환경으로서의 공간형태는 그 새로움이 질서의 수준에서 볼 때 인간정신기능의 균형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그 주기적 변화성은 건축가의 지속적 변화추구를 통한 자기표출과 함께, 시각환경의 자극장 변화를 내적으로 요구하고 수용하여 생명에너지를 충당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명에너지 순환체계라 할 수 있다.

예술을 인간 생명력의 은유적 표현이라 한다면 실험정신은 생명 에너지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라 할 수 있다. 예술은 이념적 지평에서가 아니라, 느낌에서 의미로 연결되는 통로를 개척함으로써 진정한 사회적 용도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일은 노력하는 소수에 의하여 선도된다. 이러한 예술가의 창작체험과 일반대중의 향수체험 관계에서 창작-작품-향수의 삼위일체가 성립해야 함을 대전제로 할 때, 일반대중의 예술작품에 대한 적절한 해석과 심층구조의 파악을 위하여 예술에 대한 '교육을 통한 세마 구성'이 선행조건으로써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술 전반을 실험정신에 의하여 선도되는 생명에너지의 순환체계라고 볼 때, 현대 공간예술에 나타난 혼재향은, 비록 정화화시대에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반대중의 공간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히는데 건축가를 포함한 제반 종사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Arnheim, Rudolf,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이화여대 출판부, 1997
2. Arnheim, Rudolf,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역, 미진사, 1996
3. Arnheim, Rudolf, 예술과 엔트로피, 정용도 역, 눈빛, 1995
4. Arnheim, Rudolf, 예술심리학, 김재은 역, 이화여대 출판부, 1995
5. Gombrich, E.H., 예술과 환영, 차미에 역, 설화당, 1994
6. Hughes, Robert, 새로움의 충격, 최기득 역, 미진사, 1995
7. Jenchs, Charles, 네오모던건축, 조희철·우창훈 역, 공간예술사, 1992
8. Kishon, Ephraim, 피카소의 달콤한 복수, 반성환 역, 디자인하우스, 1996
9. Lang, Jon, 건축이론의 창조, 조철희·김경준 역, 도서출판 국제, 1991
10. Morris, Desmond, 털없는 원숭이, 김석희 역, 정신세계사, 1991
11. Morris, Desmond, 머리 기른 원숭이, 황현숙 역, 까치, 1996
12. Stevenson, Lesler,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일곱가지 이론, 임철규 역, 종로서적, 1996
13. Wofflin, Heinrich, 미술사의 기초개념, 박지영 역, 시공사, 1997
14. 原口秀昭, 20세기의 주택, 강병근 역, 화영사, 1995
15. 김용희, 기호의 힘은 세다, 청동거울, 1999
16. 김정애, 공간체험을 통한 긴장·이완의 현상, 실내학회지 16호, 1998. 9
17. 박진배, 현대 인테리어의 표현경향 - 실내디자인 이야기, 실내디자인 학회, 기문당, 1998.
18. 안영배, 건축표현의 상대적 양면성, 대한건축 학회지 28권 116호, 1984. 2
19. 전영미, 20세기 실내디자인의 조류, 기문당, 1999
20. 정만영, 건축형태의 자의적 생성에 관한 연구, 박논, 1992
21. 함정도, 실내휴식공간 분위기 연출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3.2

<접수 : 1999. 9. 14>